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	2017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0/2(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1(日) 11:00부터

문의 : 유통물류조사팀 임재국 팀장(02-6050-1440), 이선해 대리(02-6050-1509)

4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 황금연휴 기대감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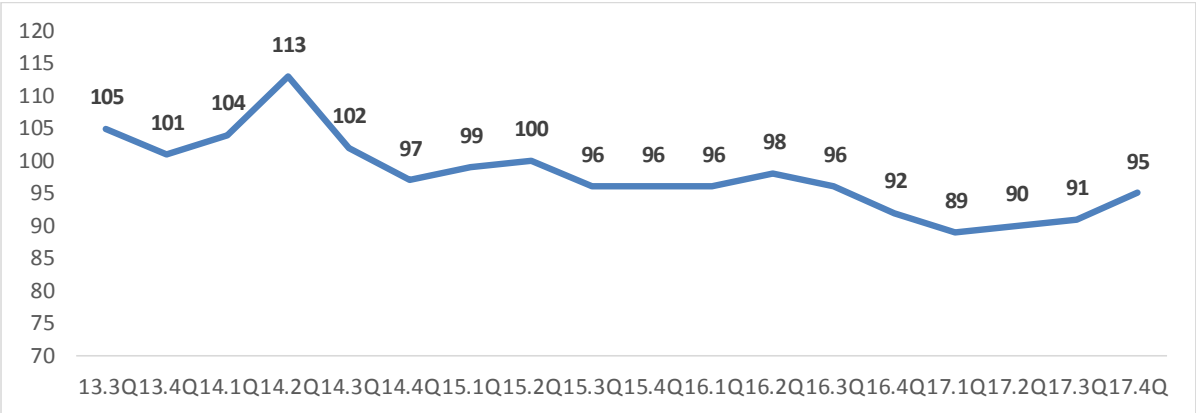
- 商議 4Q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95'... 기준치(100)는 여전히 하회
- 업종별 희비 극명... 홈쇼핑 대폭 상승('102'→'156'), 편의점('87'→'83') 전망 어두워
- 4분기 경영애로 요인 : 수익성 하락(47%), 인력부족(16%), 유통관련 규제강화(12%) 순

10월초 황금연휴 기대감에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홈쇼핑과 온라인 업태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지난 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한 '95'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89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통업전망지수가 추석 황금연휴와 연말시즌 특수를 앞두고 4분기 연속 상승했다”면서도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북핵 리스크 등에 따른 내수 불안 우려로 기준치는 여전히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업태별로는 홈쇼핑과 편의점의 희비가 엇갈렸다. 홈쇼핑은 겨울철 계절특수와 함께 방송 콘텐츠 다양화 효과로 전분기 대비 54포인트 오른 156을 기록했다. 인터넷쇼핑몰(105)도 겨울철과 욜로족* 증가에 따른 고객증가로 전분기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 욜로: YOLO(You Live Only Once)를 모토로 현재와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업태	‘14년		‘15년				‘16년				‘17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종합	102	97	99	100	96	96	96	98	96	92	89	90	91	95
인터넷쇼핑몰	112	111	108	106	108	108	104	111	110	105	108	105	100	105
백화점	100	99	101	104	90	91	95	98	94	94	89	90	91	91
대형마트	97	91	96	98	96	93	96	96	92	81	79	82	85	85
홈쇼핑	120	126	118	96	87	119	104	89	97	121	104	104	102	156
편의점	100	90	88	95	96	87	84	85	88	83	80	82	87	83
슈퍼마켓	96	85	88	94	99	90	91	94	92	89	85	88	93	92

반면, 편의점은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83)을 기록했다. 편의점은 과포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 점포 수는 3만 4천여개로 인구 1천 5백여명 당 하나 꼴에 달한다. 편의점 산업의 원조격인 일본은 인구 2천 2백여명 당 한 곳의 편의점을 두고 있다.

슈퍼마켓(92)은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백화점(91), 대형마트(85)는 황금연휴 효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나 규제 강화,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며 횡보세를 보였다.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유통기업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5.5%), ‘업태간 경쟁 격화’(18.8%), ‘업태 내 경쟁 심화’(9.9%)등을 꼽았다. <‘상품가격 상승’(5.6%), ‘판촉 및 할인행사’(4.5%),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1.7%), ‘광고 확대’(1.0%), ‘기타’(12.9%)>

4분기에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수익성 하락'(47.0%), '인력 부족'(16.1%)에 이어 '유통관련 규제 강화'(11.8%), '자금사정 악화'(9.1%), '정부정책의 비일관성'(3.6%) 등 순이었다. <'기타'(12.4%)>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매유통업 경기지수 반등이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통업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7. 8. 28 ~ 9. 19
□ 조사업태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48개사, 회수율 79.3%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RBSI 산출식 : (호전예상 응답 기업수-악화예상 응답 기업수)/응답기업수 x100 +100